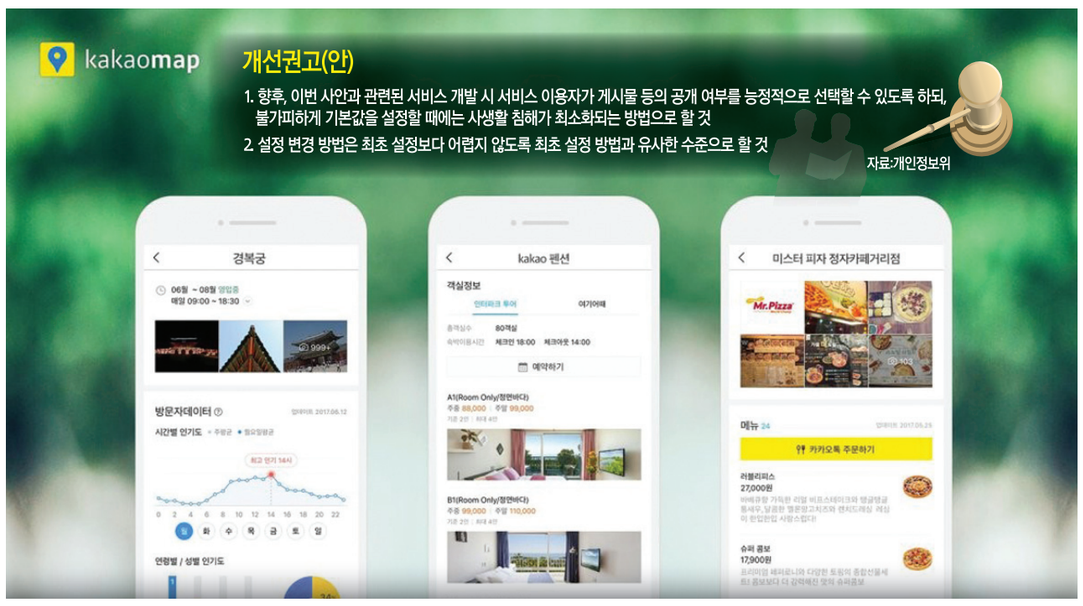
# “카카오맵 즐겨찾기 기본값 설정 문제 있다”

**기본 폴더에 대부분 ‘공개’ 설정**
**장소 목록 등 사생활침해 가능성**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개선 권고**
**“현행 법 위반 적용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맵 개인정보처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이다.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다. 그런데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새 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새 폴더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정 화면에는 폴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도 게시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권고 사항으로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이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번 사건이 다른 사업자들도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팅앱 ‘골드스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의결도 이뤄졌다.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트리플콤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으로 침해된 개인정보는 총 14만3435건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 몽고DB “혁신적 플랫폼 위해 개발자 지원”

**신재성 대표, 시장 영향력 확대**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자 생산성이다. 개발자들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자유롭게 오가며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돕겠다.”

도큐먼트 지향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업 몽고DB가 개발자 생산성 향상을 키워드로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단순명료한 아키텍처와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멀티 클라우드 활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손쉽게 다루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신재성 몽고DB코리아 대표는 23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업현황과 솔루션 전략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혁신에 발빠른 기업들이 몽고DB를 활용해 개발자 생산성을 높이고 집중된 고객 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하면서 세계 어디서나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 100여 국에서 3만1000개 고객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는 지난해말 기준 450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해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 KT, MWC서 ‘우수 파트너 2곳’ 전시 돕는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KT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 (MWC 2022)’에 우수 파트너 2곳과 함께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KT와 함께 이번 MWC 2022에서 참가하는 파트너사는 메타버스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들을 보유한 KT 우수 파트너사인 ‘아이디어링크’와 ‘코아소프트’ 2개 기업이다.

두 기업은 KT가 추진하는 메타버스와 AI 분야의 사업에 협업을 진행해 왔다. KT가 운영 중인 파트너사 협력 플랫폼 ‘KT에코온’에서 핵심 에코로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로 인정받아 MWC 전시 참여 기회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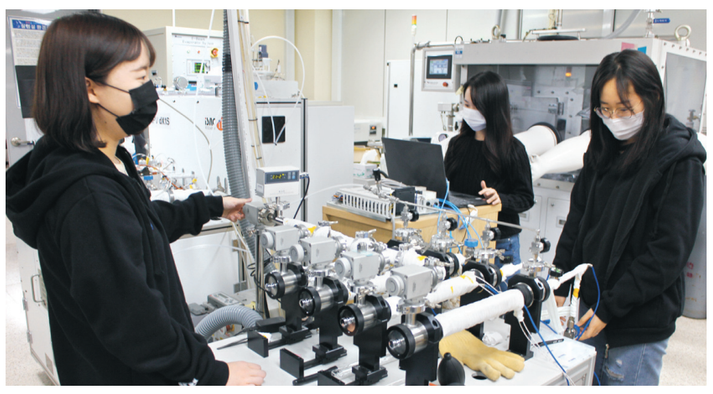
코아소프트는 비전 인식을 통한 AR(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SW(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이다. 코아소프트는 이번 전시에서 AR/VR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여행을 결합한 ‘여행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행 메타버스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글라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기술이 적용된 3D 여행지를 미리 여행하고, 필요 시 메타버스 속 여행 가이드와 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서비스다. 김나인기자 silkni@

**대학·기업 오픈랩, 지역 성장엔진 켜다** 6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끝〉

# 반도체 박막 공정·신약 개발로 지역경제 주춧돌

**원자공예 분야 6억원 기술이전**
**올해 로봇 등 오픈랩 10개 확대**


‘차세대 메모리 소자용 영역 선택적 원자층 박막증착공정 개발 오픈랩’ 소속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제공

“기존 부품소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고, ICT 융복합 부품소재 분야 R&BD(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겠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지역 기업과 혁신기관들을 연계한 기술사업화 오픈 플랫폼을 통해 미래형 ICT 융복합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이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역산업연계 오픈랩 사업’을 기회로, 지역 기업에 미래 먹거리와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며 성장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반월·시화공단, 안산강소특구, 경기테크노파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탄탄한 혁신·R&D 기반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에 탄탄한 운동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운영하는 6개 오픈랩 중 두드러진 곳은 김우희 재료화학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원자공예·반도체공학연구실’이다. 모만, 넥서스비, 나인솔 등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연구실은 작년에만 총 3건, 6억6000만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실험실에 있던 기술을 시장에 꽃피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김 교수와 호흡을 맞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는 반도체 제조에 적용되는 ALD(원자층증착공법)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ALD는 최신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 기술이다. 반도체 제조에서 증착은 필수적인 공정으로, 원형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쌓고 깎는 과정이 수백 차례 반복된다. 기존에는 주로 CVD(화학기상증착법)와 PVD(물리적기상증착법)가 활용됐지만 칩이 소형화·고집적화하면서 더 얇은 막이 필요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ALD는 전구체와 특정 반응물질을 반복적으로 주입해 웨이퍼 표면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함으로써 막 두께를 훨씬 줄이고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김 교수는 모만과 ALD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스얼라인 발생 문제, 넥서스비와는 ALD 공정 중 균일한 박막 형성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나인솔과는 30㎚(나노미터) 미만 ALD 공정 개발에 매달렸다. 그 결과 모만과 5억5000만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 등 총 3건의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모만은 ALD 공정에서 겪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술 경쟁력과 상품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 교수는 올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자 제조에 필요한 이산화규소 박막 증착기술 개발·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종욱 생명나노공학부가 이끄는 오픈랩은 엑소티디엑스와 총 20억원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혈액 내 엑소좀 분리기술을 확보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홍 교수와 팀을 이룬 엑소티디엑스는 사업에 필요한 전략 컨설팅을 받은 데 이어 치료용 엑소좀 분리 카티셀(CAR-T Cell) 치료제 기술을 확보했다. 홍 교수는 세현테크와 유용미생물 분리 기술, 바이오엔텍과는 신약 개발을 위한 고속·저가 스크리닝 기술 개발에도 호흡을 맞췄다. 올해는 미세유체시스템 기반의 엑소좀 정밀 분리 원천기술 플랫폼을 산업화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고, 범용 카티셀 액티베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에 이전한다는 목표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8건, 총 32억9000만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병주 전자공학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랩은 로보에테크놀로지와 1억3000만원 규모의 수술용 로봇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안용한 건축학부 교수 오픈랩은 엔알비에 총 3억5000만원 규모의 모듈러 공법 기반 이동형 건물설계 기술을 이전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올해 오픈랩을 10개로 늘리고 총 10건의 기술이전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오픈랩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연계, 입주공간 제공, 인재 지원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김봉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산업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우수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형 기술사업화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학의 기초·원천 연구결과물이 미래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MSS의 모든기능을 추가설치없이 완벽하게
클라우드 통합메일보안솔루션
MSS MCS
CLOUD SERVICE
AI기술 기반의 최신 기술로
안전한 기업메일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One

사회공헌 활동가를 찾습니다

재능많고, 맘 따뜻한 신중년!
아동 돌봄분야 사회공헌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아이들을 좋아하는 신중년
• 모집기간 2022. 2.23. ~ 2022.3.8.
• 지원자격 - 1952~1972년 출생자, 미취업자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
(돌봄, 학습, 예체능, 요리, 상담, 행정지원 등)
• 지원방법 구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 활동장소 구로구 관내 아동돌봄기관, 작은도서관
• 활동기간 2022. 3. ~ 2022. 12.
월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
• 활동혜택 시간당 2천원 참여수당
1일4시간 이상 활동시 9천원 실비 (1일 17,000원)
보람과 자부심, 생활의 활기와 젊음
• 주관기관 구로구청, (사)행복한아이들1512
• 문 의 02-838-7988, happyi1512@naver.com
SMART GURO

첫 번째 임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웃으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두 번째 임무
아픈 아이는 엄마 대신 병원도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 임무
요리, 미술, 책놀이 등 방과후 상담 및 학습활동을 지원해줍니다.



네 번째 임무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고 간식도 챙겨줍니다.

